

제 227 호

사순 제 5 주일

1977. 3. 27.

# 숲 정 이

발행인	김 종 택
인쇄인	범 석 규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35098)

□ 칼럼 □



## 과거는 어떻게

권용희 신부

옛 말에 열길 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다. 십년을 같이 살고 것처럼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엄청난 물건을 슬쩍하고 잠적했다는 소문도 있다. 참으로 알수 없는 것은 사람의 겉과 속이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더망 높고 훌륭하던 사람이 하루 아침에 그 본 모습이 드러나 세인(世入)의 지탄을 받는 일도 있다.

이처럼 철석같이 믿거나 기대를 걸던 사람이 배신할 때 제삼자도 가만 있지 않는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할 때 이런 것을 당하는 본인이야 얼마나 분통이 터질 일이나.

그런데 이 분통이 터질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 야훼께서 어떤 백성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아껴서 계약을 맺고 여러번 은혜를 베풀고 타일렸지만, 이 백성은 자주 다른 잡신을 경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졌다. 이 때문에 예언자들은 자주 이 지조없는 백성을 간음하는 여인이라고 책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만큼이나 지조가 없었던 여인인지도 모른다. 여하간 이 여인은 모세 법(신명 22, 24) 대로 죽어야 할 운명에 놓였다. 변명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 여인은 당시의 관습대로 돌로 맞아 죽기 직전에 다행히 예수님 앞에 끌려갔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끌고 갔을까? 그들 속셈은 예수님까지 죽이고 싶어 서였다.

산상수훈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용서해 주고, 아무도 심판하지 말라고 하신다. 그럼, 이런 여인도 용서하란 말인가? 만일 용서하라면 모세의 법을 어기는 자이니, 간음한 여인보라 더 큰 죄인이다. 이 위기에 주님의 슬기로운 대답은 무엇인가?

“당신들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치시오”

아마 이 말에 모든 사람이 섭죽했던 모양이다. 남 모르게 과거에 지었던 죄에 양심이 찢린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로 부터 하나씩 내뱉다. 다른 사람들도 다도 당치고 말았다. 이제 남은 사람은 예수님과 최지은 여인 둘 뿐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도 당신을 단죄하지 않겠소 그러나 돌아가시오.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시오.” 하고 타일렸다. 즉, 이사가 예언서에서처럼 과거가 문제되지 않는다. 앞날이 문제다. 사도 바오로도 똑같은 것을 말씀하신다. “다만 나는 내 뒤통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놓인 것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해 달릴 뿐이다.”

(노송천주교회 보좌신부)



## 어떤 대화

韓勝憲...일제당국이 그만한 사건(註: 기미 독립선언문에 서명했던 33인 사건)의 그만한 인물들에 대해서 3년 정도의 처벌로 끝낸 것은 당시 적용법률인 보안법(保安法)의 법정형(法定刑)의 제한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뜻 보아 내란이나 폭동 소요의 죄목을 씌우지 않은 것은 그들의 압제상(壓制相)에 비추어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鄭求英...그들이 사형까지 할 수 있는 내란 폭동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언뜻 이해가 안가고 일제가 제법 법을 엄격히 집행한 것처럼 생각되기도 해. ...

한가지 주목할 일은 33인사건의 제 1심재판을 맡았던 다찌가와(立川)란 재판장이 그 사건의 소추요건(訴追要件)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공소불수리(公訴不受理) 결정 즉 요셋탈로 하면 공소기각(公訴棄却) 결정을 내려서 큰 파문을 일으킨 사실이지. 검사측의 공소(控訴)로 제 2심에 가서는 미비한 요건을 보완하여 유죄판결이 나긴 했지만 다찌가와와 공소 불수리결정은 총독부 치하의 일본인 재판관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는 점에서 소신대로의 명판단이었다고 생각해.

韓勝憲...선생님과 저는 법조계에서 일한 시기나 연륜으로 보아 커다란 세대의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생님께서 일하시던 당시의 법조계와 요즘의 법조계를 비교해 보실 적에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鄭求英...그런 이야긴 못하겠어. 이 늙은이가 새삼스럽게 말하면 또 뭘해,

굳이 한 마더 한다면 이거야. 3권분립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갈 사람을 대법원장이나 대법원판사로 선출하고 재야(在野)·제조(在朝)의 공동의 노력으로 사법권 독립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만 말해두고 싶어.

(월간 對話 1977년 3월호 권두대담에서)

## 숲 정 이 산책



수고가 많겠어요!



# 3.1 사전 마지막 공판 방청기

## 문 규 현 신 부

3월22일 나는 고속버스 정류장에서 어떤사람의 달갑지 않은 전승을 받으며 문규현 신부의 아버님을 모시고 서석구신부, 한 봉섭 신부와 함께 '뭐 그렇고 그렇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기뻐하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서울에 갔다. 법원 정문에 이르니 내의 기자들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물론 정사복 기관원들이 더 많았지만.....

이날따라 법원 앞에는 크고 작은 차도 많았다. 잠시 방청권을 받으려고 서 있노라니 어디선가 피가 끓는 소리가 들린다. "우리는 승리하리라." "우리는 자유하리라." 찬송가를 부르며 함석헌 선생과 이 해동 목사를 선두로 구속된 형제들의 가족들이 행렬을 지어오고 있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재판정에 들어갔다. 우리 장한 형제들의 모습은 평온하였고 그들의 평온한 마음을 드러내는 양 겉으로 보기에 얼굴들은 그대로 불 만 하였다.

10시 6분 민 복기 대법원장을 비롯한 16명 대법관사들이 등장한다. 지난날 소위 인혁당 사건에서 보고 두번째 보는 광경이다. 18명의 우리 형제들 전원의 상고를 기각 원심형량대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에서 징역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 한다.

「피고인들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단이 타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변호인 27명과 문정현, 함 세웅, 신 현봉 신부들의 자필로서 제출된 우리 장한 형제들의 상고 이유서에 대한 이 나라 최고 법정 16명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다.

그 판결요지는 우리 형제들의 「구국선언문」이나 우리 교구 문 정현 신부의 김 지하에 대한 「호소문」이나 신 현봉 신부의 「경과 보고서」등이 사실 왜곡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객관적인 사실이 제시되어 뚜렷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증명되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밝혀달라는 우리 형제들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를 보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을 왜곡한 것이 인정된다는 판결이다.

나는 1심과 2심 모두에 걸쳐 방청을 해왔다. 우리 형제들은 증거와 증인 채택을 호소했다. 그러나 우리교구 문 정현 신부가 묵놓아 외켰던 증인 및 바른증거 채택의 호소는 허공에 날린 호소가 되고 말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

담장에서 답들이 평화롭게 지내는데 박쥐가 침범하여 답이 건디다 못해 소리의치니, 사실 왜곡 날조하여 민심을 혼란케하고 선동 하였다고 부엄이가 울메미에게 고발하고 답은 백토에게 도움을 청하였지만 속수무책. 어쩔 수 없이 답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쫓겨오"하고 울었다는 함 세웅 신부의 지난날 원심에서의 최후진술이 생각난다.

이날 선고가 끝난 후 방청인들의 발은 무겁기만 하였다. 우리 형제들을 어두운 서대문 구치소로 보내면서 "우리는 승리하리라" 는 외침으로써 겨우 마음을 달랠 수밖에 없었다. 이날 법정에는 김 수환 추기경을 비롯, 지학순 주교등도 참석하였으나 또 한번의 아픈 체험이었다 우리 형제들은 언제까지나 하늘을 향하여 울어야하는 답이어야만 하는가.....

나는 우리 형제들의 평온한 얼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과 생활은 바로 마태오복음10장 26절이하의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었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피부로 느껴질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 하지 마시오. 감추어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입니다."

(고산천주교회 주임신부)

\*신자들의 건강 센터\*

### 성심당한약방

이 상 법(필노리아노)  
육교 밀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③ 4544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 미성당 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전화 ②3301 (자택 ②8548)

각종 페인트·지물  
비닐 장판·표구재료·화선지

K.S 사슴표 페인트 대리점

### 대 동 지 업 사

임 정 원(도민고)

□전주시 풍남동 1가 17(동문사거리)  
☎ ②5986 · ②2765

## 베델 성서 강습을 마치고 (3)

김 정 원 신부

베토벤의 「십포니 9번」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합창이 들  
어있기 때문이라고. 합창은 인간의 육성(肉聲)이다. 우리가 「말씀」을 놓고 인간의 「육  
성」(肉聲)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이 자기안에 깊이 내재되어 그것이 무엇인가 하  
나의 「소리」를 빌려 나올때 듣는 채로 하여금 심금을 울리게 하는것, 설교자(說敎者)  
나 강론자는 그것이 필요하다. 「십포니 9번」이 아름다운만큼 그런 「소리」와 더불어  
설교자의 연주회는 아마 성공적으로 마칠 것이다.

「베델」성서는 또한 「기억의 그릇」을 주는데 있다. 하나의 「기억장치」를 해주는 데  
있다. 공부란 기억도 필요하다. 그 방법으로서 「그림」을 마음 속에 그리게한다.  
「마음의 그림」은 사실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마음의 그림을 생각하면 하나 하나  
기억하게 된다.

신·구약전과(모두40과)에 걸쳐 매과마다 그림이 나온다. 성경의 주제에 대한 상세한  
그림이 나온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호연관성을 알게한다. 그림때문에 여러가지 것을  
한꺼번에 동시에 파악하게 된다. 왜 성경이 기록되고 인쇄되었는가? 어떠한 「창구」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오래도록 기억하고 그것도 몇번이고 마음속에 반추하기 위해서이다  
이 이익을 위해서 「베델」성서는 그림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나는 이 「베델」성서를 공부한 다음부터는 성서에 대한 어느정도 자신이  
불게 되었다. 바이올리니 스트가 어느 수준에 올라가야만이 혼자서도 쉼 수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혼자서도 성서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끝)

(부안 천주 교회 주임신부)

## 요심이 (191) 김병오



### (시) 십자가의 영광 빛나는 길로

김 의 완 (프란치스코)

당신은 하느님의 선물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그런데 우리들은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아! 무엇을 하였는가  
당신을 위하여 이물 바치오리니

생명의 문 열어주소서  
오! 주여  
이 모든것 바치오리니  
영광을 나에게 비추옵소서  
십자가의 영광 빛나는 길로  
당신만 따라 가려 하나이다.

(MRA 전북 본부)

이전 안내

### 성원약국

성원표(스테파노)  
태평동 전매청 좌측  
200m지점  
전화 ⑤ 5780

각종 생과자 식빵 및 케익크

### 미미제과소

전화 ③ 6589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6  
(상업 은행 옆)

김민주(가타리나)

개원안내

### ★ 언제나 찾아 주세요 ★ 수석(水石)치과의원

전주시 중앙동 3가 42~1  
(박소아과) 앞  
원장 김 현(아오스딩)  
전화 ② 1665

◎사진기계·사진재료 도산매◎

### 태광사

유영문(가이다노)  
전주시 중앙동 3가 67  
전주우체국 후문 앞  
전화 ② 6346

OSTAR 미사·전자장판 대아 전기 전북대리점  
여의주 전자 약탕기 전주 대리점

### 광신전업사

박상기(안드레아)

전주시 중앙동 3가16(한일관 앞) 전화 2-4753

각종 조명기구, 석유 연소기구, 가정용 전자기구

◎새롭고 저렴한 연탄 보일러 안내◎

### 한국(流)온수 온돌 공사

(본사직영 호남출장소)

이리시 인화동 2가65-16 (전화4940)

합	담	압	(모이세)
노송동 ⑤4874	부안 736	남원 90	장수
다가동 ⑤4342	정읍 2157	임실 261	고창
전동 ⑤2143	김제 45	무주	진안
군산 3032	삼례 350	진안	진안

☆ 각 지방 지점 구할 (계약금 없음)

공지사항

1. 사순절 특별 강연회(교구 평협 주최)...신자들의 많은 참가는 물론, 이웃 형제들에게 널리 알리고 참가를 권유합니다.

<주제> 소위 "정교분리(政敎分離) 원칙"의 진상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하는가?

<연사> 김 재 덕 주교 (천주교 전주 교구장)

<일시> 3월 30일(수) 오후 7시 30분 ..... 군산 둔율동 천주교회
3월 31일(목) " ..... 이리 창인동 천주교회
4월 1일(금) " ..... 전주 중앙 천주교회

(중양)

전화 3651 3874 주임 신부 서용복 보좌 신부 김진석 사도 회장 이복석

- 1. 예수 수난(성지)주일(4월3일): 10시미사, 주교님집전 ※성지가지는 축백나무로 각자 준비바람
2. 성심 부녀회 월례회: 4월 1일 어머니미사 후
3. 대학생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27일 10시 미사후, 사제관 3층 회의실
4. 구리아 목사회: 4월 2일 오후 2시~3일 오후 2시 중앙성당 강당에서, 회비-500원
5. 아치에스 행사: 4월 3일 오후 2시, 중앙성당 오월의 마돈나 CU. 산하 뿌리시디움단원과 협조 단원 전원 참석 바람
6. 판공일정(4월): 진북동, 인후동, 금암동-5일(화)/서노송동 1,2구, 중노송동-6일(수)/경원동, 고사동-7일(목)/태평동-8일(금)/학생, 기타-9일(토)
※고백성사시간: 오전 9~12시, 오후 2~7시

7. 교무금 납부 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128,745원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웅희 사도 회장 박종용

- 1. 판공일정 안내: 인후동-28일(월), 29일(화)/남노송동-30일(수)/중노송동 1가-31일(목), 4월 1일(금)
※시간: 오후 2시반~5시반, 오후 7시~8시반
2. 중·고등학생미사: 오늘부터 매(일)요일 오전 8시반
※본당내의 중·고생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3. 전복 성프란치스코 3회원님을 환영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53,895원

(덕진)

전화 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용환

- 1. 중학생 확대회의: 모든 중학생 참석바람
2. 아동교리시간 변경: 일요일 오후 2시
3. 축! 견진받으신 분들 65명, 성령 가득하시길 기구 합시다
4. 성당 신축헌금: 김봉기(5만원), 전갑관, 김순례(각 5천원), 유금례(1천원) 누계: 5,668,500원
5. 판공일정: 팔복동, 송진동-29일, 덕진동-30일, 금암동-31일
6. 청년회보 4월분 원고모집: 30일까지
7. 기공식 무사히 마쳤습니다
※신축헌금 납부하여 새성당 건립에 힘을 모읍시다
8. 밀린 교무금은 언제 납부하시렵니까?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김종길 사도 회장 조성호

- 1. 사순절 본당피정: 3월30~31일, 저녁 8시 ☆ 교우 참석바람(참석자는 판공성사시 참고없음)
2. 판공 일정: 다가동, 중앙동, 고사동-30일(수) 오후 2~5시/ 완산동, 화산동, 효자동-31일(목) 오후 2

~5시/ 태평동, 진북동, 기타-4월 1일(금) 오후 2~5시/성사 못보신 분들-4월 2일(토)오후 2~4시/직장인, 학생-저녁 미사후

- 3. 견진 교리시간: 초중고생-〈일〉 오후 2시, 일반-〈토〉 오후 4시반
4. 성지주일 전례 담당안내: 1독서-최요셉, 2독서-장동주, 수난복음...+신부님, ◎조성호, ○김성원, 신자들의 기도-김수경, 신미카엘라, 김테레사(영자), 박경희, 박종현
5. 사도회 월례회: 4월 4일(월) 오후 8시

□ 주일 봉헌금: 41,160원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준

- 1. 다음 주일은 성지주일 입니다.
2. 사도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3. 가정방문 및 반상회: 3월 29일(13반)
4. 판공일정: 3월31일-마음리/4월1일-광곡리/2일-숙부리/분당...4일(1~6반), 5일(7~11반), 6일(12~13반, 기타반)
5. 학생회 월례회: 4월 3일
6. 신용조합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 주일 봉헌금: 39,410원

(숲정이)

전화 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전종근

- 1. 예비자 등록: 사무실에
2. 김혜나 전교 수녀님, 박혜려나 유치원수녀님 수고하시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김영진 선생님 오르간 1대 기증 ◦허옥순(글라라)님 판포 기증
4. 판공일정: 4월 4일-진북 2동/ 5일-서신동 / 6일-금암동/ 7일-진북 1동/8일-태평동, 기타 ☆ 빠짐없이 춘계 판공 성사에 임해주시오

□ 주일 봉헌금: 103,365원

(전동)

전화 8222 주임 신부 김환기 보좌 신부 김윤석 사도 회장 김유석

- 1. 글라라 형제회: 오늘 오후 1시반, 사제관
2. 동 반장회 결의사항: 부활전 교무금 독려
3. 부활 영제자 교리: 매일 밤미사 후, 성당
4. 보통성사 보류(다음주간): 판공성사 때까지
5. 단식·금욕으로 인성회 후원합니다.
6. 판공 일정: 안심리-29일 오전/두원리-29일(화) 오후 3~10시/돌곶지-30일(수) 오후 3~10시
7. 중·고 신입생 환영 야외소풍: 송광사(현지미사) 지참사항...도시락, 일금 100원
8. 성주간(4월 4~9일) 행사안내: 〈월~토〉 판공성사, 〈목〉단체별 성제조배, 영세식, 〈금〉십자가의 길, 수난예절, 〈토〉부활전야 미사

□ 주일 봉헌금: 121,029원